

U-20 월드컵 4강 쾌거 이룬 '김은중호' 귀국 SPORTS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골짜기 세대' 2회 연속 4강행 '브론즈볼' 이승원 필두로 입국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두 대회 연속 4강'이라는 쾌거를 이룬 김은중호가 팬들의 환대 속 한국 땅을 밟고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19년 폴란드 대회 정정호호의 준우승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아르헨티나로 떠난 선수단은 조별리그를 무패로 통과하는 등 승승장구해 팬들을 설레게 했다.

스타 선수가 없어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까지 받은 등 무관심 속 대회를 준비한 대표팀은 에콰도르와 16강, 나이지리아와 8강전을 모두 잡으며 기어코 4강 무대를 밟았다.

대회 준우승팀인 이탈리아와 4강전에서 후반 41분 통탄의 결승 골을 내주며 한 곳 차로 '어게인 2019'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3위 결정전에서도 4위를 최종 성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김은중호가 써 내리간 치열한 분투기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교통센터에서 열린 U-20 대표팀 환영식에서 김은중 감독과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상시로 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렵게 다져낸 조직력을 토대로 모든 경기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끈한 축구를 보여줬다.

세트피스를 활용해 '한방'으로 단숨에 전황을 뒤집는 '실리 축구'로도 무장해 한 수 위 체급이라 평가받은 강호들을 줄줄이 잡아냈다.

김은중호의 도전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3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 4강에 올라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낸 김은중호는 갑작스러운 개최지 변경이라는 변수를 맞닥뜨렸다. 상대적으로 익숙한 인도네시아에서 지구 정반대 지역으로 장소가 바뀌면서 준비 과정도 요동쳤고, 김 감독을 필두로 한 코칭스태프의 고심도 깊어졌다.

유럽파 이현주(바이에른 뮌헨) 등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고, 조별리그 중간에는 귀중한 스트라이커 자원인 박승호(인천)가 발목 골절상으로 조기 귀국하는 등 부상 악재도 겹쳐졌다.

'고난의 서사' 마지막 장면은 팀의 간판으로 거듭난 주장 이승원(강원)의 '브론즈볼' 수상이었다.

이는 최우수선수인 골든볼, 2위 실버볼에 이어 3번째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인정받은 선수에게 주어진다.

K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무명'인 동료들의 설움을 등에 업은 이승원이 우리나라 축구팬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한국 남자축구의 위력을 세계 무대에서 증명했다는 자부심을 품고 돌아온 선수들은 공항 제2교통센터에서 예정된 환영 행사에 참여한 뒤 숙소팀으로 돌아가 출전 경쟁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매진한다.



황선우가 14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체육수영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 예선에서 역영하고 있다.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 자유형 100m 47초79로 우승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대회...시즌 세계랭킹 4위 기록

광주에서 열린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100m에서 황선우(강원도청)가 우승했다.

황선우는 14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79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황선우의 기록은 올 시즌 세계랭킹 4위에 해당한다.

현재 핀잔러(중국의) 47초22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47초

61)와 매슈 리처즈(영국·47초7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날 예선에서 전체 2위로 결승에 오른 황선우는 첫 50m 구간에서 22초92로 선두를 차지한 뒤, 나머지 50m에서도 24초87로 경기를 가장 빨리 마무리했다.

2위와 3위는 48초76의 이호준, 50초10의 김민준이 각각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월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48초21을 기록했던 황선우는 자신

의 기록을 0.42초 앞당겼다. 그러나 지난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 준결승에서 자신이 달성한 자유형 100m 한국 기록 47초56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날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61로 우승을 차지. 이번 시즌 세계랭킹 1위 기록을 경신한 황선우는 이번 대회를 2관왕으로 마쳤다.

한편 다음 달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예정인 황선우는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해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서 '2023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

16~18일 F1국제자동차경주장서 바이크 300여대 '열전'



'2023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이 오는 16~18일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이탈차안전보급협회 주관, 영암군의 후원으로 열리며 바이크 300여대,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해 각축을 벌인다.

16~17일에는 연습경기인 '트레 데이'가, 18일에는 본격적인 '코리아 트로페오 레이스'가 마련된다.

경기는 600cc 이상 두카티, 600cc 이상 피렐리, 400cc 이상 KTM 대회 등 3개 클래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두카티는 두카티사의 바이크로, 피렐리는 피렐리사의 타이어를 장착한 바이크로 벌이는 레

이스이다. 경기방식은 국제규칙인 '8시간 내구 레이스'다. 아시아 각 단체에 소속된 선수들이 국적으로 상관이 없이 최대 4인 1팀을 이뤄, 1인당 30분 이상 주행한다.

대회 관람은 무료이며,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가상현실로 바이크 타기를 체험하는 '레이싱 시뮬레이터', 푸짐한 경품이 준비된 추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일본 출신 프로 레이서 유타 오키야마 선수의 라이딩 교육과 사진 출사, 4개의 이벤트도 준비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 이외에도 이번 달과 10월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영암 튜닝 카 레이싱 대회'도 예정돼 있어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며 "국제대회를 포함해 다양한 레이싱과 모터카 경기를 유치해 지역경제와 튜닝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송원대 세팍타크로 더블 금메달·레구 동메달

'지난해 창단' 전국체전서 3위...우정호·김성훈 U-21 태극마크

송원대학교 세팍타크로팀이 제34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에서 값진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쥘었다.

송원대는 지난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스포츠펀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학부 더블 이벤트(2인 출전) 결승에서 대구과학대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원대는 또 레구 이벤트(3인 출전 종목) 조별 리그에서 대구과학대(2-0승), 목원대(0-2패)를 상대로 1승 1패로 기록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동선대에 0-2으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지난해 창단 첫해 전국체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광주시선수단 선전에 한몫했던 송원대는 올해 광주시체육회에서 지도자(코치)를 배정받아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해 경기력이 한층 더 좋아졌다는 평

을 받고 있다. 신임선수 2명(박진호·천지민)을 영입해 탄탄한 전력도 구축했다.

특히 올해 우정호와 김성훈이 U-21 태극마크를 달았고, 강봉교 지도자는 U-21 남자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됐다.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김동재 송원대 부장 교수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광주시체육회 지원금이 증액된데다 올해부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지원까지 더해져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대회에 출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면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34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에서 우승기를 거머쥔 송원대 선수단이 14일 송원대 총장실에서 최수태 총장, 신정훈 스포츠지원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성료

150팀 참여...남자 웨이크보드 일반부 윤상현 우승

영광군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남녀학생총체 수상스키·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8일~11일까지 영광군 불갑저수지 수상스키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남자 웨이크보드(WB) 일반부 1위 윤상현, 2위 김윤서, 3위 지훈, 여자 WB 일반부 1위 전유진(단독 출전)이 입상을 했다.

나머지 4종목을 포함해 총 25명의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에 전국 150개 팀, 연인원 1200여 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했으며 1억여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불갑저수지의 잔잔한 물결 위에 움직이는 선수들의 몸놀림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윤상현 선수의 경기 모습은 수상스키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선수들조차 혀를 내두르



며 감탄을 연발케 했다.

영광군은 15~18일까지 제3회 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 겸 2024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비롯해 제104회 전국체전 전남도대표 최종 선발전 겸 제43회 전남도지사기 검도대회(6월 23~25일), 법성포 단오제 씨름대회(6월 23~25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